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 하나님과 성령님이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니 빛을 발할 자료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2. 하나님은 선생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선생을 통해 할 일을 하셨습니다. 섭리인들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각자를 통해 할 일이 있다. 그것을 꼭 해야 한다.
3. 선생이 시대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내가 옥에서 나갈 때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를 생각하고 기도했다. 그런데 2015년 2월 25일 자정에 돌아가셨다.
이처럼 기도한대로 안 됐다고 해도 뜻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자기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 포함해서 행하시고, 과거에 기도했는데 그때 안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후에라도 꼭 해주신다.
4.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면회를 왔었다. 그때 어머니를 만나서 실컷 대화를 나누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그 후 어머니를 다시 못 보고 돌아가셨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때는 항상 늦다. 고로 하나님은 항상 먼저 하신다. 이를 꼭 잊어버리지 말고 행해라.
5. 어머니가 기계로도 더 이상 연명하기 어려울 때, 선생의 큰 형이 선생에게 어머니의 산소 호흡기를 빼주는 것이 어떤지 물어왔다. 이에 선생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한 사람이 어머니의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을 통해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어머니를 더 살게 해서 고생시키는 느낌이 들었다. 성자가 스스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다. 이를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래도 더 살아야

되겠느냐.” 했다.

6. 스스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도 억지로 하지 않고 깨우쳐주시고 스스로 하게 하신다. 고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같이 하나 되게 하신다.
7. 하나님이 한 생명을 데려갈 때는 때와 시간을 정확히 맞추어, 그때의 환경과 처지에 맞게 행하신다.
8.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24일, 선생은 아픈 어머니 대신 어머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 어머니가 육신이 아파 기도할 수 없으니 선생이 대신 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셨다.
9. 그동안 어머니와 통화하기 위해 6개월 전부터 전화 신청을 했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니와 기적적으로 통화를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통화하게 하려고 그동안 안 되게 하신 것이었다.
10. 무엇이 안 된다고 불만불평하지 말고, 가장 적합한 때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라.
11.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우리를 통해 행하신다. 그러나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버린다. 그러니 알고 행하라.
12. 하나님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우연 같이 모든 것을 해놓으셨다. 이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모님의 영혼을 부탁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13.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는 모두 뜻이 있기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준다. 고로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니 깨닫고, 지난날 부모님들에게 해준 것을 고마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14.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일주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보름 뒤인 하나님이 보낸 자가 태어난 날 3월 16일에 휴거 역사가 일어났다. 성자가 가시기 전 어머니를 먼저 깨끗이 장사 지내드리고 시간에 딱딱 맞춰 행하신 것이었다. 감탄과 감격과 기쁨과 놀라움의 역사였다.
15. 선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모님도 사고 났든지 병으로 죽었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영혼들을 챙겨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한 영혼을 데려갈 때 이와 같이 행하심을 깨달아라.
16.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 육도 영도 모두 빛을 발해야 한다. 빛을 발하지 않는 자는 어둠의 길로 계속 가고 있다.
17.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진리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자는 그 영이 어둠으로 가고 있다.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사망의 세계로 간다.
18. 선생은 지옥을 갔다 와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 지옥의 어마어마한 늪지대는 팔죽 같은 세계로,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다. 그곳으로 가면 다 빠져서 썩은 물을 먹으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한참 신앙의 늪에 빠진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보여주셨다. 빛이 없는 세계였다.

19.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빛이다.

20.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요, 메시아와 심정 일체, 마음 일체, 행동 일체 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21. 하늘나라는 빛의 세계, 발광의 세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해와 같아서 그 빛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다. 마치 구름 속에 뜨는 해를 보면 환하게 보이듯 환한 발광체와 같다.

22. 하나님은 의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 공의의 빛, 긍휼의 빛, 수만 가지로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다.

〈하나님 말씀〉

23. 나 여호와가 빛이니라. 사랑의 빛, 진리의 빛, 긍휼의 빛, 너희를 감싸는 빛이니라. 섭리사 신부라도 그 빛에 직접 올 수 없느니라. 오직 내가 보낸 사명자만이 왔다 가느니라. 고로 그 말을 나의 말로 듣지 않으면 너희는 그 빛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빛인지를 알 수가 없느니라.

24. 선생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너희 부모들도 그와 같이 해주는 것을 알아라. 나는 진실로 영혼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마지막 결정할 때 심히 심히 생각이 깊으니라. 왜? 나 여호와는 불의를 일점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5. 너희는 나의 신부지만, 나를 안 믿은 너의 부모는 신부가 아니다. 고로 구원하기 곤란하다. 천하의 법이 있는데 어떻게 죄인의 의인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 너희가 선생같이 회개를 미리 해주어라. 회개도 안 하고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너

희가 반드시 회개를 해줘야 하나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도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써먹을 수 있느니라.

26. 너희의 행위가 하늘나라에서 빛으로 나타나니, 빛에 속한 일을 하여 너희 행위를 정직하게 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빛을 받을 수 없느니라.
27. 내가 보낸 자의 빛, 곧 진리와 사랑과 공의가 우연 같지만 진실로 내가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역사를 펴는데 안 하겠느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가 가느니라. 이를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여호와가 진실로 말하나니, 이는 중요한 말이니라.
28. 하늘나라는 빛으로 모든 것을 갚아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라. 빛으로 다 주는 것이다. 그의 공력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빛을 보고 세상의 공력도 알고, 하늘나라에서 나 여호와와 성령과 성자께 행한 공력을 아느니라.
29. 하늘나라의 빛은 나 여호와가 창조한 빛도 있지만, 너희가 세상에 행한 의의 빛과 사랑의 빛과 진리의 빛도 같이 포함되어 빛이 난다.
30. 시대가 왔다고 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있는 자요, 시대가 안 왔다는 자는 빛 가운데 아직 안 온 자니라.
31. 1978년부터 나 여호와의 말씀의 빛이 비치며 포로 된 자, 사탄에게 끌려가서 영원히 사망으로 갈 자들을 이끌어내고 자유함을 줬노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을 이끌어내듯 너희를 이끌어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해서 자꾸 이끌어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때부터 나 여호와가 이 성약역사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32.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고는 빛을 받을 수 없나니, 무엇이 명예이며 권세이며 빛인지 깨달아라.
33.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확신하며 전하는 자들이 빛을 받는 자니라.
34. 너희의 사랑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수의 사랑이라야 사망을 이기는 빛을 발하느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임하나니, 그 사랑은 불가능이 없느니라.
35. 빛을 받으면서 부지런히 하라.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룬다.
36. 열심히 충성으로 해야 뜻을 이루고 빛을 발한다.
37.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빛을 발한다. 정신, 마음 세계를 완벽하게 하기다.